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 명칭, 5·18 역사성 담아야”

SOCIETY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복원추진단 ‘복원건물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 참석자 “5·18의 인류 보편적·세계적 가치 포함”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의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 문체부와 광주시, 옛전남도청 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옛 전남도청 건물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원 건물의 명칭과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건물

의 운영 주제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인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명칭’ 순서에서는 복원건물 명칭이 오월 정신과 5·18 역사를 기억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성호 옛 전남도청 복원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80년 5월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신군부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10일 간의 항쟁을 명칭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오월 정신이 이제는 K-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세계로 뻗어 가는 미래 지향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 전일빌딩245에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와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이 광주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인류 보편적, 세계적 가치를 담고 있는 민중항쟁이다. ‘민주’, ‘인권’ 등이라는 표현도 포함해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명칭을 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명칭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우리는 ‘옛 전남도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며 “80년 5월의 아픔과 역사, 수많은 희생 등이 ‘옛 전남도청’, ‘상무관’이라는 명칭에

다 들어가 있다. 왜 이제 와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복원된 옛 전남도청 명칭에 5·18민주화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 조직구성·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담당한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는 “옛 전남도청 복원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존재적 가치, 역할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80년 5월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됐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명칭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17 🌧️ 날씨 21:01
☀️ 예보 19:47 🌧️ 날씨 05:28



5·18재단, 전남 비하 유튜버 후원금 거부

“자신 책임 회피 수단 이용”

5·18기념재단이 제21대 대선 당시 전남지역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유튜버에게 후원금 거부의 뜻을 전했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유튜버 잡식공룡(27·여·본명 왕현수)이 재단에 후원한 500만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5월 최근 자신의 SNS에 21대 대선 전남 투표율과 함께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 날인 6일 자신의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며 5·18기념재단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여론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실제 재단 문의계시판에는 6일부터

재단이 해당 유튜버의 후원금을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민들도 재단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기념재단도 고심 끝에 후원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후원금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재단은 9일 해당 유튜버에 반환 절차에 대해 물어보는 메일을 전송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후원금 기부에 순수성이 의심된다. 논의 후 해당 유튜버에게 반환의 뜻을 전하고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5·18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구새마을회 재활용품 수거 분류 11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재활용품 수거 행사에서 김대영 동구새마을회장과 회원들이 각 동에서 수거한 헌옷, 고철, 폐트병 등을 분류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무기한 파업’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열음’

A운송회사 준법 운행 통보에 일부 조합원 강력 항의

시청 집회서도 ‘불법’ 비판...운행 재개 등 참여 독소동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A운송회사는 오전 5시40분에 나서는 첫 차는 물론 오전 6시30분까지 출차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현장에는 시내버스 조합원과 경찰, 노동청 관계자 등 10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조 집회에서도 일부 노조원들의 파업 이탈에 대한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상복 자동차노련 광주 노조위원장은 “문자를 발송한 A회사 노조 지부장은 파업과 관련한 체결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조합원이다”면서 “권한이 없는 자가 조합

원들에게 임의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파업 장기화 여파로 광주 10개 운송회사 중 5개 회사만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000명 수준이던 파업 동참 인원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 손해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파업을 포기하려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지에 복귀하고 있고, 비노조원까지 현장에 투입되면서 운행률이 8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실제 운행률이 40~5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홍민 기자 yhb9792@

광주	☁️	19~29
목포	☁️	19~26
여수	☁️	19~24
순천	☁️	18~25
구례	☁️	17~28
광주	☁️	18~26
임도	☁️	18~25
흑산도	☁️	17~22
고흥	☁️	17~26
진도	☁️	17~25

택시기사 폭행한 취객 ‘유죄’

만년필 ○...택시 운전기사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취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35분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를 폭행하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형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생활고에 처자식 살해한 40대 가장 구속 송치

생활고에 시달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함께 탄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벌인 A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

해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현장 근로자였던 그는 자살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체불,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조사에 따른 압박을 받은 가운데 카드빚 등 2억원 상당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또한 A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수면제를 구입하는 등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신하 기자 goback@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남대학의
학부별·계별
다목적
다목적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NAVER 나코스 🔍